metro

메트로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아깝다 퍼펙트" 류현진 5승

술값 늘고… 담배 소비 줄고…

지난해 가구당 한달 평균 술값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담배 소비는 감소세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주류 소비는 1만751원으로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많았다. 반면 담배 소비는 1만 7263원으로 지난 2003년(1만6653원) 이후 제일 적었다.

2003년 6359원이었던 가구당 월평균 주류 소비는 2004년 72원, 2009년 8356원, 2010년 921원, 2011년 9400원, 2012년 9779원, 2013년 1만751원 등 10년간 매년 늘었다.

반면 담배 지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담뱃값 지출은 지난 2006년 2만262원 이후 2008년 2만355원, 2010년 1만8501원, 2012년 1만8351원으로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 1만7000원대로 떨어졌다.

/유주영기자

드미트리 사바타키키스(왼쪽) 시스트란 회장과 CSLi 박기현 대표가 출범 행사를 열린 뒤 악수하고 있다. /시스트란 인터내셔널 제공

토종 소프트웨어기업 "큰 일 냈다"

자동번역 솔루션 CLSi, 佛시스트란 인수 세계 1위 … 갤럭시S4 번역·메신저 탑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 1위에 오르는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TV, 휴대전화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이 종종 글로벌 챔피언 자리에 오른 적은 있지만 토종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같은 영예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1위 자동번역 솔루션 전문기업 씨에스엘아이(CSLi)는 글로벌 1위 자동번역 솔루션 개발사인 프랑스의 시스트란(SYSTRAN)을 인수하고 사명을 '시스트란 인터내셔널'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리에 본사를 둔 시스트란은 196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자동번역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업계 최다인 총 89개 언어를 번역하고 있다.

구글이 60개 언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경쟁 우위에 있다. 미국 국방부, 유럽연합(EU) 등 정부기관은 물론 다양한 기업에 번역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B2B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도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4 이상 모델에 탑재된 'S번역기'에 시스트란의 기술이 적용됐고, 갤럭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메신저 '챗온' 역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S번역기나 챗온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입력하면 한글로 번역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 언어로 변환된다.

결과적으로는 CSLi가 프랑스 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1위에 오른 모양새이지만 CSLi의 원천 기술은 이러한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시스트란, 구글, MS의 번역과 달리 CSLi는 음성 번역을 지원한다. 즉 시스트란이 구축한 텍스트 번역 기반에 자체 음성 번역 기능을 추가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등원으로 투자금의 3000배를 회수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시스트란 인터내셔널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는 CSLi가 시스트란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550억원 가운데 18%(약 100억원)를 거들었다. 알리바바 대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돈 되는' 기술을 알아보는 데 일가견이 있다.

음성 번역 소프트웨어를 최근 가장 '핫'한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할 경우 파급력은 엄청날 수 있다.

구글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안경을 예로 들면 영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과 같은 비영어권에 수출을 하려면 현지 언어로 바꿔줘야 한다.

그런데 현지화 작업에는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 인원 소모가 많다. 하지만 번역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으면 현지화 과정을 사실상 생략할 수 있다.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허순영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이동이 늘어나면서 모든 언어의 자동 통번역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간 지능형 협업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동번역 분야는 최종 언어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며 "시스트란 인수는 우리 기업이 전세계를 상대로 영향력을 갖는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이며 국내 IT 산업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기자 zen@metroseoul.co.kr

더 일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총리의 빈 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옆 국무총리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비경제 총괄 부총리 신설"

6년만에 부활… "유병언 일가 조속히 검거"도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이번에 교육·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정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경제쪽의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 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력자원개발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다. 교육부총리가 신설되면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체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선준기자 ... @metroseoul.co.kr

'자리 세습' 대신 '복지 세습'을

가지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중국에서 수십 년간 유지한 국유기업 자녀에 대한 채용 우대 정책이 최근 현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른바 '자리 세습'이 대대손손 이어지며 죄없는 인재들을 계속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국유기업의 직원이 정년 퇴직하거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 자녀가 빈자리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되면서 86년 폐지됐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신규 채용 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대다수 중국인은 이른 자리 세습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공정한 시험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야지 특정 소수에게 무슨 이유로 가산점을 주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자리 세습 논란은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많은 국내 대기업은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 가족 관계와 부모의 직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이들이 '가족 우대' 정책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가뜩이나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또다시 밀려나는 인재들만 서럽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직원들에게 '밥그릇'을 물려 주고 싶으면 부당한 자리 대신 기업의 복지 혜택을 물려 주길 바란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은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급여의 50%를 10년간 지급하고, 자녀가 19세가 될때까지 매달 장학금으로 1000달러를 준다. 아름다운 복지 세습이 아닌가.

국회 미방위원장 홍문종·정무위원장 정우택

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홍문종 정우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미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 후보자 선출 투표를 실시해 이들을 선출했다.

안사하는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새누리당,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왼쪽)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행부 '조직' 살아 남는다

행정자치부로 변경 정부 3.0 주도 '인사·안전'은 이관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게 됐다.

청와대는 27일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은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된다.

유 수석은 방침 변경에 대해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안행부의 이름은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3.0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이다. /유선준기자

6세 아이 입맞춤 징역 3년

울산지법은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선준기자

섬지역 향하는 투표용지 6·4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각지도 등 섬지역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여객선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 줄소환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발화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건물 관리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합동감식반은 검찰·경찰·소방·국과수·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또 화재로 숨진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부검은 28일부터 진행된다.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가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만큼 소방안전시설 정상 작동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마무리에는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자와 건물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5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MB정부 후 사기업 취업 시도 공직자 1800여명"

이명박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1800여 명이 퇴직 직후 사기업에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7일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을 보면 국방부가 3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205명, 금융위원회 152명, 국세청 99명, 대검찰청 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구축망 일원화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경찰·해경·군·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기존 무선통신망을 쓰고 있는 8개 시도에서 본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는 이미 통합지휘무선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결정과 기술검증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37개 기능의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필요 예산을 확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뒷받침한다.

총사업비는 ISP 수립 이후에 산출된다. 기존에 제안된 테트라(TETRA) 방식의 경우 1조원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시장성이 없고 기술발전 가능성이 적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와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유일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김해공항 한·일 노선 승객 는다

엔저 영향으로 항공사별 6~10% 증가

올해 들어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왕래하는 승객이 엔저 등의 영향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7일 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노선의 탑승객은 항공사별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에어부산의 한·일 노선 승객이 지난 4월까지 14만36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2318명보다 10.7% 증가했다.

대한항공을 이용한 탑승객은 17만55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6444명보다 6.1% 늘었다.

노선별로는 부산~도쿄 나리타 노선 탑승객이 15만6656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많았다. 부산~오사카 노선은 11만5827명으로 지난해보다 6.5%, 부산~후쿠오카 노선은 12만2744명이 탑승해 지난해보다 3.4% 각각 늘었다.

이같은 한·일 노선 탑승객 증가는 올들어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부산에서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에어부산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노선을 매일 왕복 1회에서 2회로 증편하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한 것도 승객이 증가한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한·일노선은 지난해까지 외교관계 경색 등으로 승객이 크게 줄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만 한·일 노선 승객이 15.4%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한·일노선에서만 지난해 5.5% 줄었다.

/이정우기자 cyc.ons@metroseoul.co.kr

새콤달콤 '애플 망고' 드세요 27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김관철(63)씨 농장에서 아열대 과일인 '애플 망고' 출하 준비가 한창이다. 애플 망고는 겉이 노란 '옐로 망고'와 달리 완전히 익으면 껍질이 사과처럼 붉게 변하고 과육에서는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연합뉴스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국비지원 무산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정부의 국비지원 무산으로 암초에 걸렸다.

울산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서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탈락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농식품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비 총 1770억원 가운데 30%인 428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했다.

그러나 2차 현장실사에서 도매시장 일부 종사자의 이전 반대민원 때문에 탈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원을 해결한 뒤 내년 3월에 다시 신청, 국비 확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이 현 도매시장의 재건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민원이 해결될지 미지수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석유화학공단과 직선거리 200m 정도로 가까워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공단과 시가지 사이 공해 완충역할을 해야 할 근린공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시는 1990년 1층으로 건립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심에 있는데다 부지가 좁고 시설이 낡아 현 위치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남구 야음 근린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착공해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8만6923㎡ 부지에 전체면적 8만2851㎡,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청과채소동, 수산동, 종합직판장, 관리동, 양념류작업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물살 가르며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개막 제40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가 27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남고부 쿼드러플스컬 선수들이 신호음이 울리자 출발하고 있다. 장보고기 조정대회는 1974년 개막 이래 올해로 40회째를 맞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84개 종목으로 겨루며 전국 101개 팀에서 7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신보·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협약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본부는 27일 부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 창업자와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천한 창업기업과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2%포인트 감면한다.

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창업 전에 1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창업이 이뤄지면 창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를 교류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한의학대학원 기초의과학분야 센터 지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로 지정됐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최장 7년간 7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노화 질환의 한의학 치료기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이 연구센터는 암, 당뇨,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았다.

감천문화마을 빈집 고쳐 민박집으로

부산시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관광객을 위한 민박집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하구는 이를 위해 빈집 7채를 사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집 외부는 최대한 옛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부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은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화하기로 했다.

사하구는 민박집을 준공하면 마을공동체에 운영을 맡겨 주민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8월께 착공, 내년 1월부터 민박집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집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재생 지역에 민박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하구는 내년 3월 마을 입구에 안내센터를 완공해 방문객에게 문화마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해 롯데워터파크 30일 개장 오는 30일 개장하는 경남 김해 롯데워터파크의 실외 파도풀 전경. 김해시 신문동 김해관광유통단지 안에 있는 롯데워터파크는 축구장 17배 크기인 12만2777㎡ 부지에 연면적 4만7153㎡ 규모로 세워졌다. /연합뉴스

해난구조 전문가 교육

부산소방학교는 이달 말부터 2주간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와 해운대해수욕장 등지에서 해난 구조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

전국에서 선발된 4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강, 하천, 바다 등 휴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목적에서 교육을 한다.

화명동~양산 강변도로 개통

부산 내부 순환도로망의 핵심 구간인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를 잇는 강변도로가 착공 11년 만에 27일 완공됐다.

부산시는 27일 북구 화명생태공원 앞길에서 서병수 시장,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명~양산 강변도로 개통 기념식을 했다.

화명~양산 도로는 길이 6.8㎞, 폭 18~38m(왕복 4~8차로)로 북구 화명동 쪽 다대항 배후도로 종점부인 덕천나들목에서 북구 금곡나들목까지 3.44㎞는 신설됐다.

나머지 구간인 금곡나들목에서 경남 양산까지 3.36㎞(2005년 완공)는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됐다.

1천971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03년 공사에 들어가 11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

김종철 부산시 건설본부장은 "화명~양산 도로 개통에 따라 부산 감천항과 다대항 등지에서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을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지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남해 경부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소 무려 210곳… 관리 어쩌나

부산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등 440명 배치 · 부정행위 단속 공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0~31일 처음으로 전면 도입하는 사전투표 관리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투표일을 4~5일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는데다가 사전투표소가 무려 210곳이나 돼 관리가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대로 반경 100m만 벗어나면 선거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확성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사전투표소 주변으로 집중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경계선을 놓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경계선 주변에서 확성기 볼륨을 높이면 투표소까지 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확성기 사용에 관해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 제한만 있고, 소음기준이 없다.

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0일 오전 6시부터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440명을 주변에 배치하고 검찰과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와 반경 100m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출력해 선거운동원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4·24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사전투표를 경험한 영도구선관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캠프에 사전투표소 주변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에는 16개 구·군의 주민센터에 주로 사전투표소가 마련되고 주민센터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구청 대강당 등으로 대체된다.

사전투표소별 자세한 위치는 시선관위 홈페이지(http://bs.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길이 230m 무게 50t '세계 가장 큰 줄' 세계에서 가장 큰 줄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줄이 27일 경남 의령군 둔지에서 줄당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볏짚으로 하나하나 꼬아 만든 이 큰 줄은 원줄 길이가 230m, 둘레 5m, 무게만 50t에 달한다. /연합뉴스

부산항대교 '혈세 먹는 하마' 우려

통행량 예상치에 한참 미달

지난 22일 개통한 부산항대교가 '또 하나의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초 양쪽 접속도로의 미완공 때문에 교통대란까지 우려했으나 실제로는 통행량이 예상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방식의 하나인 BTO(건설 후 기부하고 30년간 운용) 방식으로 건설된 부산항대교는 실제 통행량이 협약에서 정한 수준에 못 미치면 부산시가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의무를 진다.

부산시가 개통 후 통행량을 조사해보니 아직 통행요금을 받지 않는데도 계획통행량(하루 4만9834대)은 물론 MRG 보장 통행량(계획통행량의 80% 하루 3만9천870대)에 한참 못 미쳤다.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된 첫날인 23일 하루 동안 양방향 통행량은 2만6천363대(영도 방향 1만2538대, 감만동 방향 1만3825대)였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통행량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토요일인 24일에는 2만9173대(영도 1만4242대, 감만동 1만4931대), 월요일인 25일에는 2만5182대(영도 1만2576대, 감만동 1만2606대)에 그쳤다. 특히 26일에는 1만8231대(영도 8771대, 감만 9460대)로 계획 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산항대교 개통 전 부산시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통행량이 계획 통행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면 하루 2000만원 상당을 부산시가 민간투자자인 북항아이브리지에 물어줘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부산시는 막대한 MRG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양쪽 접속도로인 감만동~동명 오거리 지하차도(2015년 말 완공 예정)와 영도 연결도로(고가도로·8월 완공 예정) 공사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량 부족으로 보고 있지만 적정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을 때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동료 사무원 성추행 혐의

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같은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이모(62)씨를 불구속 조사중이다.

부산시 모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인 이씨는 26일 오후 8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장 임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던 박모(58·여)씨를 성추행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예술인 200명 '비엔날레 보이콧'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200명이 오는 9월 개막하는 2014부산비엔날레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역 25개 문화예술단체 모임인 부산문화연대는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비엔날레 보이콧 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연대는 "공동 전시감독 선정 문제를 비롯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주최 측의 문화행정에 반대해 지역의 젊은 예술인을 중심으로 200명이 올해 비엔날레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이콧에 동참한 200인에는 미술인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인문학, 청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는 외국작가도 상당수 있다.

문화연대는 비엔날레 보이콧 선언을 시작으로 부산비엔날레 향후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와 별도의 비엔날레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교성 문화연대 간사는 "보이콧 선언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담담한 발언"이라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고질적인 문화행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부산비엔날레는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홀리아트센터 등지에서 열린다.

나이지리아 피랍소녀 위치 파악

정부 관계자 — "지금 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다"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소녀들의 위치가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알렉스 바드 나이지리아 국방 합모총장은 이날 도심에 모여 있는 시위대를 향해 "소녀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면서 "나이지리아 군이 구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지금 들어가서 소녀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소녀들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 BBC 방송은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와 보코하람 간 소녀 석방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보코하람이 소녀 50명을 풀어주는 대신 정부가 보코하람 조직원 100명을 석방하기로 거의 합의를 이뤘으나 틀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 치복시에서는 무장한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치복공립여자 중등학교에 난입, 300명 이상의 여학생을 납치했다.

이 사건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굿럭 조너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달 들어서야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의 납치와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미기자

美 트위터로 '보물찾기' 열풍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갑부 돈봉투 숨긴 뒤 힌트 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시민들이 보물 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한 부동산 갑부가 도시 곳곳에 돈을 숨긴 뒤 트위터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한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히든 캐시 (숨겨진 현금)'라는 별명을 쓰는 트위터 계정 @HiddenCash 사용자는 보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위성도시인 오클랜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 이번 주에는 LA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돈을 몰래 숨겨 둔 뒤 트위터에 글과 사진, 동영상을 올려 힌트를 주고 사람들이 이를 찾아내도록 하고 있는 것.

그는 20달러짜리 지폐를 끼워 두는 경우도 있지만 100달러짜리 지폐와 쪽지가 든 하얀 돈 봉투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망가진 공중전화 부스, 지하철 역, 전봇대 등 온갖 장소에서 보물이 발견됐다. 중고 레코드 가게에 있는 '위 아 더 월드' LP 레코드 재킷 안에서도 돈 봉투가 나왔다.

행운의 봉투를 발견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보물 찾기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날 오후 현재 히든 캐시의 팔로워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다.

히든 캐시는 이 프로젝트가 '익명의 사회적 실험'이라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 온라인 매체에 자신을 부동산 업자로 소개하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뜻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돈을 백만 달러 단위로 벌었다. 하지만 내 친구와 회사 동료들은 시내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1주일에 한두 차례 돈을 숨겨 놓을 예정이다. 이 게임을 언제 중단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실리콘밸리 갑부 등 미국 내 부유층이 밀집,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다.

/조선미기자 csomi@metroseoul.co.kr

무슨 꿍꿍이속? 2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오른쪽 총리가 조너선 그리너트 미국 해군 참모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모델대회 수상 상품이 '일자리'

metro HongKong

이색 캠퍼스 미인대회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미인선발대회 열풍이 대학 캠퍼스에까지 불고 있다.

지난 21일 후난성 창사시 79층쿠이이 예술센터에서 제1회 매력지성(魅力之星) 모델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후난성 전문경영인협회와 창사시 익스트림스포츠협회가 기업 인재와 스포츠-건강이라는 주제를 결합해 고급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통적인 모델 선발 대회의 형식을 깨고 창사시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후보로 선발, 우수한 대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얻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들은 모델 워킹, 종합 소양, 란제리쇼, 스포츠 게임 등을 통과해야 한다.

대회는 금·은·동상을 뽑는 명칙 자질상·탤런트상·인기상을 각각 3명, 4명, 10명 선발한다. 금상 수상자는 5만 위안(약 82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10위 안에 든 학생들은 향후 후난성전문경영인협회에서 직무 교육을 통해 경영보좌관, 홍보담당자, 비서 등의 인재로 양성된다.

또한 몸매가 좋고 자전거를 잘 타는 수상자는 후난성 제2회 진상 자전거레이싱모델 결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티켓과 함께 그린 엔젤 의 영예를 얻는다.

이후 레이싱모델에서 1위를 차지하면 '그린 퀸'으로 승격되고 재봉 자전기 전공바오(鵬光)회의 제7회 환상자전거대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대회는 총 300명의 참가자 중 선발된 50명에서 다시 20명을 뽑는 2차 대회였다. 대회의 결선은 다음달 28일 개최된다.

/정리=조선미기자

은행들, 실버세대를 잡아라

新고객층으로 급부상… '은퇴 브랜드' 경쟁적 출시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 이모씨(51)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퇴직까지 길어야 5년 정도 남았는데 은퇴 이후 네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해서다. 믿는 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뿐인데 만 65세부터나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도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라 생활비로 쓰기 빠듯하다. 그러던 중 수년 지인으로 부터 '가교(브리지)형 연금'을 추천 받았다. 이 상품은 은퇴 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다리(가교) 역할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을 일컫는다. 매년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기간에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씨는 "은퇴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게 돼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실버마켓을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향후 은퇴금융 시장 규모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 더욱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빠진 은행들이 실버마켓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

27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 의약품 여가 의료기기 산업에서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 새 3.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금융사들에게도 비즈니스의 기회다. 주요 은행들은 새로운 은퇴 영업 브랜드를 만들거나 은퇴 후 자금수요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은퇴설계 브랜드인 '신한미래설계'를 발표하고, 은퇴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거점점포에 미래설계센터를 열고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기존은퇴 서비스가 주로 연금상품을 통한 재정적을 게시했다면, 앞으로는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불리고, 은퇴 생활비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은퇴생활비 전용 통장인 '미래설계통장'도 함께 출시됐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흩어져 있는 은퇴소득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은퇴 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복디자인' 이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정기적으로 건강 취미·여가 인간관계 등 비재무 주제로 '행복브리즈'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행복 디자인 은퇴 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도 제공한다. 행복연금통장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연금수급자 전용통장이다. 4대 공적연금 수령자 또는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외환은행은 올해부터 4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해피니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해피니어는 '행복한 (Happy)과 '시니어 (Senior)의 합성어다. 이 서비스는 해피니어전 게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노후설계 컨설팅과 4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준비 단계부터 은퇴기간까지의 단계별로 적합한 은퇴준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연금상품 라인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과 퇴직연금, 은퇴상품 등을 혼합해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eunji@metroseoul.co.kr

KOSPI 1,997.63 USD/KRW 1,023.20

코스피 2000선 붕괴 코스피가 기관의 '팔자' 공세에 2000선을 내줬다. 2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2.72포인트(0.63%) 내린 1997.6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달 13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연합뉴스

더 낸 세금 돌려받자

내달 2일 소득세 신고마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왔다.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지만 급여생활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이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다.

우선 월세소득공제는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50%이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증빙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재직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김민지기자

다음카카오 김범수 주식부자 4위에

보유가치 1조 … 벤처 재벌 순위 '지각변동'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결정으로 김범수(48) 카카오 의장이 1조원에 육박하는 정보기술(IT) 주식 부자 순위 4위에 등극하게 됐다. 다음 카카오 상장 통합법인이 탄생하면 김 의장은 주식부자 1조원 클럽 에 바로 진입할 전망이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다음을 발판으로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을 하면 보유 주식 가치가 9169억원으로 올라 30~40대 신흥 IT 주식 부자 순위 4위에 단숨에 진입한다.

이는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808만3800주에 합병가액 11만3429원을 곱한 수치다.

여기에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가치 490억여원을 합치면 김 의장의 주식재산은 9664억원으로 불어나 이준호(50)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제지게 된다. 이 회장은 현재 9589억원의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카카오'가 상장하면 이 통합법인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의 보유 주식가치가 1조원을 훌쩍 넘으면서 2~3위와도 순위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자수성가형 IT 주식 부자 1조원 클럽에는 3명이 포함됐다.

1위는 김정주(46) NXC(넥슨의 지주회사) 회장이다. 김 회장의 주식재산은 1조739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위는 이해진(47) 네이버 이사회의장(CSO)으로 보유 주식가치가 1조1908억원이다. 이어 게임업계 1세대인 김택진(47) 엔씨소프트 사장이 1조1527억원의 주식재산으로 신흥 IT 주식 부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정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1997.63 (-12.72)	547.97 (-0.88)

금리(3년 국고)	환율(달러/원)
2.83 (변동없음)	1023.20 (-0.30)

뉴스&뉴스

미란다 커가 디자인한 도자기

27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로얄알버트 매장에서 모델이 미란다 커가 디자인한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심리 최저 수준

● 소비자심리지수(CSI)가 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SI는 105로 전월(108)보다 3포인트나 하락했다. 5월의 CSI는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반영된 지난해 9월(102) 이후 최저 수준이다. 5월의 전월 대비 CSI 하락폭(3포인트)은 같은 수준인 지난해 9월(3포인트)을 빼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반영된 2012년 6월(5포인트) 이후 최대다. /박선옥기자

가계 빚 1025조 사상 최대

●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24조8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증가폭은 지난해 3분기 14조원, 4분기 27조7000억원에 비해 둔화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계 빚의 증가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상승이 제한적인데다 전세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대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현섭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351,3
부산광고문의	051)507-2100
독자센터	02)721-9800

2005년 5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LG G3 나홀로 고가 전략 통할까

출고가 89만9800원· QHD 효과 '글쎄'

LG전자가 28일 공개될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LG G3'의 출고가를 80만원대로 책정했다. 일각에선 최근 출고가 인하 분위기 속에 'G3'의 출고가가 기대보다 높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잇따라 고가의 출고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 출시한 'LG G프로2'의 출고가는 99만9900원으로 올해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새로 출시하는 'G3'도 출고가가 89만9800원이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고가를 자랑한다. 이는 국산 스마트폰 최초로 QHD(2560X1440 픽셀)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QHD는 기존 HD 대비 4배, 풀HD 대비 2배 가량 선명해 각종 콘텐츠를 고해상도로 즐길 수 있다.

G3는 또 5.5인치의 대화면에 광학식손떨림보정(OIS) 기능이 적용된 1300만 화소 카메라, 3GB 램, 300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 두께는 8.95mm다.

업계는 이 정도 사양이면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지난 12일 출시된 팬택 '베가 아이언2'나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가격 부분에선 '베가 아이언2'와 '갤럭시S5'의 출고가가 각각 78만3200원과 86만6800원으로 G3에 비해 11만6600원, 3만3000원 저렴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LG전자가 90만원대 초반에 제품을 출시하려다 80만원대로 낮춘 데 대해 다소 긍정적인 모습이다. 실제 LG유플러스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G3의 출고가를 92만원으로 공지하며 예약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2만원 가량 낮아진 80만원대 가격으로 확정됐다. 이는 LG유플러스가 LG전자와 출고가 협상 과정에서 예약가입자 확보를 위해 확정되지 않은 가격을 고지하며 빚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가격은 다소 낮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G3가 출시되면 결국 경쟁해야 할 제품이 갤럭시S5나 아이언2 등이 될텐데 스펙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면 경쟁에서 밀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QHD 디스플레이 채널을 채택한 것이 고가를 유지한 이유인데, 과연 고객들이 가격 차이 대비 선명도의 차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막상 고객이 제품을 보고 이용하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기존 경쟁사 제품보다 더 높은 스펙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기자 jy0405@metroseoul.co.kr

kt금호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 개관

유네스코가 지정한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로 꼽히는 제주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 국내 렌터카 1위 브랜드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은 27일 제주여행의 기분 좋은 시작과 끝을 책임질 'kt금호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kt금호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는 총 면적 1만3443㎡(407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국내 최대 규모다. 종합 주차관제시스템과 익스프레스 서비스 등 최첨단 프로세스를 갖춰 고객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2000여대의 다양한 국내외 차량 보유, 영·중·일 3개 국어 응대 인력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제주 오토하우스에는 대여 반납 절차를 간소화시킨 익스프레스서비스가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지점 도착과 동시에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예약 후 제주 오토하우스에 방문해 바로 주차장으로 이동, 차량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김서하기자 [illegible]

수퍼스타에게! 설악워터피아 쏜다 KT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올레클럽이 VIP 독급인 '수퍼스타' 회원 중 총 500[illegible]에게 강원도 속초시 온천 테마파크 '설악워터피아'를 50%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KT제공

대방건설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6월 분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7-3·4블록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오피스텔이 다음달 1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5층~지상 14층, 전체 1281실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24㎡ 709실 ▲[illegible]㎡ 222실 ▲30㎡ 118실 ▲35㎡ 12실 ▲39㎡ 189실 ▲56㎡ 10실 ▲64㎡ 21실로 이뤄졌다. 수요자들이 다양한 입맛을 맞추고자 원룸에서 쓰리룸으로 설계된 7개 타입을 선보였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지하 1층 상가가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단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LG(11개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롯데, 이랜드 등 총 55여 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하버드대 연구단지와 프랑스 바이오기업의 입점이 확정됐다. 중국 대기업과 연구단지 및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함께 계획돼 있다.

또 지구 내 여의도공원 2배인 50만㎡ 규모의 보타닉공원이 조성되며 이곳에는 세계 5번째 크기의 도심형 식물원과 10만㎡의 생태습지 호수공원, 체험과 휴양을 겸한 세계적인 식물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1688-9970

/박선옥기자 [illegible]

4기통 엔진을 6기통으로

볼보 '드라이브-이파워트레인' 공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DRIVE-E Powertrains(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을 27일 강원도 송비치 리조트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은 볼보자동차의 새로운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명칭이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신형 4기통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과 8단 기어트로닉 변속기가 조화를 이룬다. 세계 최초 i-ART 기술 적용, 슈퍼차저 및 터보차저 활용, 그리고 엔진 경량화를 통해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신형 2.0ℓ 엔진이다. 드라이브-이 엔진은 콤팩트한 크기의 4기통 엔진이지만 엔진에 유입되는 유체(공기)의 양을 극대화, 새케 5기통 혹은 6기통 엔진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볼보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 담당 요르겐 브린네 프로젝트 매니저(왼쪽)와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식 세일즈&마케팅 상무(오른쪽)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D4엔진의 경우 동급 최고 수준의 토크(40.8kg·m)는 유지하면서도 최대 출력을 기존 163마력에서 181마력까지 끌어올려 더욱 강력한 드라이빙이 가능해졌다.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의 또 다른 특징은 이처럼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뛰어난 효율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기존 5기통 엔진 대비 실린더 수와 크기는 줄이고 6기통 엔진 대비 최대 60kg의 경량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23% 감소, 연료 효율성은 최대 26% 향상시켰다.

볼보자동차의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 프로젝트 매니저 요르겐 브린네는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의 가장 큰 특징은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이지만 이를 위해 효율성을 낮추는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볼보자동차는 안전을 넘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효율성까지 대표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볼보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은 S60, V60, XC60, XC70, S80 가솔린 및 디젤 모델들에 적용되며 오는 6월 국내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ferrari5@

"거품도 시장" IT·인플레주에 주목

유동성 전환 국면…채권에서 주식 대이동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잇고 있지만 2000년 닷컴버블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 덜 올랐다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거품도 시장"이라며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향후 유망주로 IT 핵심주나 중국 성장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등을 꼽았다.

27일 증권가들은 연달아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이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KTB투자증권은 "돈을 풀면 거품은 항상 반복된다"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상황이라도 유동성이 몰리면 안들려 주가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대전환'이 좀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금리 상승은 주가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풀렸던 유동성이 경기회복 초기에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오는 2015년 4분기로 예상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재 글로벌 장세를 '뉴 뉴트럴'이라고 표현했다.

박상현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뉴 노멀'로 저성장·고실업을 전망했던 채권운용사 핌코가 최근에는 뉴 뉴트럴로 세계 경제를 설명했다"며 "이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밀리지도 않는 중립기어 같은 상태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성장 동력이 강하지 못하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뒤로 밀리지 않아 버블 위험이 줄어든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필 IBK투자증권은 "채권과 주식이 모두 강세를 보이며 신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식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채권 매력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3대 지수인 다우지수와 S&P지수의 사상최고치 경신이 그칠 줄 모르자 일각에서는 주가 과열 현상을 우려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이전 거품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현 연구원은 "미국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가 견조하므로 과열 논란을 잠재우기 충분하다"며 "미국의 설비투자와 고용시장 이에 따른 소비 회복에 힘입기 미국 경기확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진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나스닥 누적 수익률은 27.4%로 닷컴 버블 직전인 1999년 4분기부터 2000년 1분기의 84.2%에 크게 못 미친다"며 "경기지표가 우호적이므로 눈에 보이는 디플레 우려에 매몰되지 말고 향후 경기회복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 국채 금리가 3~3.5% 수준까지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IT 핵심주와 중국 성장주,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유망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미 성장주를 따라가는 한국 증시에서도 IT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동성 장세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견해도 나왔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의 핵심 변수였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표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와 투자부적격 기업들의 지표를 볼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제 경기가 받아줄 때"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kukerd@metroseoul.co.kr

미래의 내 집 3D로 먼저 보세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로얄 라 하시에스 모델 [illegible] 사람이가 운청한 토탈 홈 스타일링 브랜드 'C_LAB'(씨랩)을 소개하고 있다. 'C_LAB'은 설계와 시공부터 작은 소품 스타일링까지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공 이후 미래의 집 모습을 3D영상으로 구현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필요"

신용카드학회 세미나

신용카드 산업의 정보 보안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 학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춘계세미나와 정기총회를 열고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정보보안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에 정부·기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회사의 사례를 하나씩 들며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전적 제도개선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서의 정보의 필요성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의 필요성 인식 ▲개인정보 보호 의 컨트롤 타워 설립 ▲IT 보안에 대한 인식변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변화 ▲공인인증제도 변화를 꼽았다.

또 사후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 ▲개인정보 유통시장의 경로 차단으로 2차 피해 최소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방향 설정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보다 신뢰있는 금융 등을 제시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다음카카오' 수혜주 찾아라

장외시장 투자심리 들썩

카카오를 비롯해 증시 입성 시점에 관심이 집중됐던 기업들의 상장이 올해 들어 줄줄이 가시화되자 장외시장의 투자심리가 들썩이고 있다.

장외시장 참여자들은 '흙 속의 진주'를 찾듯 기업공개(IPO)나 대기업 합병 예상 종목 발굴에 나섰다.

27일 장외매매 중개업체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커피 전문업체 카페베네의 장외 거래가격은 이달 초 6400원에서 전날 8800원으로 37.5% 상승했다.

특히 전날 카페베네의 거래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32% 급등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사모펀드운용사 K3에쿼티파트너스가 카페베네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고, 투자 자금을 2016년까지 IPO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게 호재가 됐다.

덕신하우징의 장외 거래가격도 이달 들어 1만100원에서 1만3250원으로 31.2% 올랐다. 한국거래소가 덕신하우징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지난 23일에는 이 기업의 장외 거래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3.04% 급등하기도 했다.

덕신하우징과 같은 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가 통과된 트루윈의 장외 거래가격도 이달 들어 오름세를 지속했다.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주가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이달 초 1만26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1만3750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22일에는 52주 최고가(1만4000원)를 찍었다.

다만 다음과의 흡수합병을 발표한 카카오의 장외 거래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카카오의 전날 장외 거래가격은 11만6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28%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다음-카카오의 합병비율 산정 근거와 거래 재개 후 다음의 주가 흐름을 확인하는 관망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됐다. /김형철기자

모델하우스 방문객 '반토막'

건설사 뻥튀기 자제 영향

한때 2만~3만 명에 이르렀던 모델하우스 방문객 수가 최근 절반 수준인 1만~1만5000명으로 줄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이 줄어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송내역 화인 푸르지오'는 주말까지 3일간 총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같은 날 문을 연 '계양 코아루 센트럴파크',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도 1만5000여 명이 모델하우스를 찾았고, '용산 푸르지오 써밋'은 1만 명,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최근 분양하는 사업장 대부분 1만5000명 전후로 방문객이 들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적게는 2만~3만 명, 많게는 4만~5만 명의 인파가 몰리곤 했다.

그렇다면 갑자기 모델하우스 방문객 수가 반토막난 이유는 뭘까. 시장에서는 분양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굳이 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분위기를 띄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방문객 숫자를 부풀려온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방문객이 많을수록 해당 사업장에 쏠린 관심도 높다는 의미인 만큼, 실제보다 1.5~2배가량 뻥튀기된 수치를 발표해 인기가 많은 것처럼 포장했던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무리한 경품을 내걸어서 아파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까지 무작정 모으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청약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숫자를 부풀릴 이유가 없어진 데다, 무리하게 호객행위를 할 필요도 사라졌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0명~5000명 정도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며 "오픈 후 3일간 1만~1만5000여 명이 방문하면 최대로 사람들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이사는 "분양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방문객 수를 부풀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처럼 꾸미는 게 마케팅 전략 중 하나였다"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조작된 숫자를 믿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실수요 위주로만 청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를 밝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에뛰드하우스 마스크 시트 기내 제공 진에어가 에뛰드하우스와 제휴해 지난 26일부터 홍콩행 항공편 기내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시트를 제공한다고 27일 전했다. /진에어 제공

효성, 가정의 달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

효성은 가정의 달을 맞아 26일 마포구청과 함께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가구당 20kg씩 총 50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포구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효성은 2006년부터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마포구 인근 이웃 500가구와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기업은 이윤추구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며 "임직원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효성은 '사랑의 쌀' 전달 프로그램에 나눔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약정 수매 방식을 도입했다. 약정 수매란 다음해 생산되는 쌀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계약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효성 직원들이 마포구 이웃을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은 매년 나눔에 필요한 쌀을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성은 공급과잉으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품질 좋은 쌀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효성은 또 기금모금 활동인 '희망나눔 페스티벌'을 3년째 후원 중이며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청년드림 마포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장희경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 잘되는 이유 있네…

GM, 유저 질문 그림으로 설명 감동 PC방 점유율 95주 연속 1위 기여

GM들은 유저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호응을 받고 있다

플레이어 챔피언이 트랩에 걸리는 이유가 뭐죠?

라이엇 GM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 플레이어 피우선 철학 운용으로 보여준다

현재 게임계는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독주로 요약할 수 있다.

PC방 점유율에서도 40%를 넘나들며 무려 95주 동안 최고 인기 게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e스포츠 대회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명실상부한 최고 게임으로 자리잡았다.

한데 이러한 게임과 e스포츠의 인기 뿐 아니라 '플레이어 최우선'의 철학으로 이뤄지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고객 대응, 즉 1:1 문답 또한 화제다.

라이엇 게임즈의 운영자들(Player Supporter GM을 의미함)이 각종 플레이어의 1:1 문의 사항에 대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 답변을 내보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1:1 문답 내용은 타인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운영자들의 톡톡 튀는 답변에 감명을 받은 플레이어들은 자발적으로 그 답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 공유함으로써 플레이어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한 플레이어는 게임을 이용하며 날개 달린 챔피언이 바닥에 설치된 트랩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문의했다. 이 때 라이엇 게임즈의 한 GM이 그림으로 해당 챔피언의 꼬리가 트랩에 걸리는 부분을 유머러스하고도 명쾌하게 답변했다.

또 '직스'라는 챔피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플레이어의 요청에 GM이 손수 그린 그림을 선사하자 감명 받은 플레이어가 화답으로 또 다른 챔피언에 대한 그림을 직접 그려 보낸 경우도 있었다. 투병 중인 사정과 함께 특정 챔피언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한 플레이어의 소식에 여러 명의 GM이 해당 챔피언의 모습을 그려 응원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독이하게 한 챔피언에게 '코끼리' '기린' '얼룩말' 등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보낸 플레이어도 있었는데 이 때에도 라이엇 게임즈의 GM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여러가지 그림으로 답변을 내보내 커뮤니티 등에 회자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과 함께 라이엇 게임즈의 기업 철학인 '플레이어중심(Player-Focused)' 또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게임회사'를 회사의 운영 철학으로 하고 있다.

플레이어들의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인 고객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정형화된 답변은 지양하고 모든 질문에 1:1의 충실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플레이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고객센터 직원(GM)들은 게임 챔피언의 이름을 따 'GM 000'로서 활동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와 라이엇 게임즈에 대한 각종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연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하고 서면으로나마 대화를 나눈다. 때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화산이니 특별한 선물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기환 라이엇 게임즈 홍보실장은 "고객센터는 플레이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담당 GM에게 항상 충실한 역할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 포커스 정책을 경영의 근간으로 항상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게임 환경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팝플 상반기 기대작 '원티드' 출시

스마일게이트의 모바일게임 전문 자회사 팜플은 상반기 기대작 '원티드 for Kakao'를 카카오게임하기에 최근 단독 출시했다.

'원티드'는 수많은 현상금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룬 RPG로 게임을 보는 재미, 하는 재미, 영웅을 수집하는 재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지난 4월 팜플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사전등록 이벤트에 총 70만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참가하면서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있다.

'원티드'는 200여 종이 넘는 영웅을 수집하고 강화, 합성, 각성 등으로 육성하는 '모으는 재미'를 통해 각종 몬스터들과 스릴 넘치고 스케일이 큰 시원한 전투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숲, 물, 불, 빛, 어둠 등 5가지 속성과 전사, 기사, 궁사, 마법사, 사제, 야수 등 6가지 직업으로 분류된 영웅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무기에 따라 외형이 변화하는 캐릭터로 수집욕을 자극한다.

'영웅의 품격' 1주년 업데이트

특히 친구를 2명까지 소환해 본인까지 총 3명의 영웅들이 실시간으로 레이드의 보스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함께 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등 기존 RPG와는 차별화된다.

기본적인 개인 전투 외에도 필요 시 협동 모드와 팀 모드로 전환해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 터치 한 번으로 이동과 공격을 쉽게 조작하거나 자동 전투 기능을 적용해 게임 진행 시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함은 물론 다양한 시각적 영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팜플은 대전 RPG '영웅의 품격 for Kakao'가 오는 6월 4일 출시 1주년을 맞는 것을 기념해 업데이트와 함께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1주년 기념 업데이트에는 '광산쟁탈전'이 추가됐다. 무림중두의 각 지역에 광산이 추가되는 가운데 혈맹단위로 쟁탈전을 진행해 승리한 혈맹의 광산을 일주일간 점령할 수 있다.

쟁탈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장 '연회신청' 결성을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5점 무기를 10성과 11성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의뢰 공헌도가 30단계로 확장됐다.

팜플은 1주년 업데이트를 기념해 영웅대회 상위 랭커에게 특별 의상을 지급하는 '오란쌔 영웅대회'를 열고 매주 순위에 따라 신규 보스의상이나 강기 등 아이템을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사상살레'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

'바늘구멍' 취업난 매칭으로 뚫는다

아바타서치·판도라매칭 등 주목
혁신적 서비스로 업계 선도 계속

이정근 사람인 대표 인터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고 할 만큼 장기화된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취업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대표 취업포털 사람인의 행보가 주목 받는 이유다

◆매칭률 높이는 서비스 집중

사람인의 서비스가 제시하는 취업난 해법의 키워드는 '매칭'이다

이정근(사진) 사람인 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결국 구직난 속 구인난 즉 미스매칭을 유발하는 상황"이라며 "사람인은 전문 취업포털로서 구직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채용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칭 확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사람인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아바타서치'와 '판도라매칭'은 구직자에게는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구직자들이 찾는 채용정보를 추천해준다 기업도 필요한 조건의 인재정보를 맞춤형으로 자동 추천 받을 수 있다

또 '패턴분석' 서비스는 개인의 취업사이트 이용 패턴에 따라 선호할 만한 정보를 추천한다 이 대표는 "최근 설립한 매칭 연구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정교한 매칭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들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사람인이 최근 시작한 '히든스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크다

'히든스타'는 구직자들에 선호할 만한 성장성과 고용 안정성 복지 등을 갖춘 알짜 강소기업을 발굴, 추천하는 서비스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과 비전이 있는 기업을 구직자들이 직접 찾는 수고를 덜고, 기업에서도 구직자들이 모르는 기업의 장점을 소개할 기회를 얻어주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구직자와 기업 간 간극을 좁혀 매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사명감이 서비스로 이어져

사람인은 현재 코리안클릭 기준 방문자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대표 취업포털이다 그동안 공채 전문관 공채의 명가 '인사통' '댓글통'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취업포털의 질적인 발전을 이끌며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했다

업계를 주도하는 대표 사이트로서 사람인의 사명의식도 남다르다 "취업난의 시름을 겪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현재의 극심한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임직원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사람인에는 구직자를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들이 눈에 띈다 합격 선배들이 전하는 기업소식과 직장생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선배톡', 현업에서 10년 이상 활약하고 있는 선배 직장인들의 인터뷰로 직업정보가 부족한 구직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당신의 멘토를 소개합니다' 등은 정보와 동시에 희망을 주는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채시즌에 맞춰 '당신의 꿈에 지원합니다' 캠페인 '응원사랑' 프로젝트 등으로 각종 이벤트와 서비스 지원을 펼쳐 구직자들을 돕는다

이 대표는 "단순히 수익창출을 넘어서 취업난 해소와 고용문화 발전에 일조하는 서비스가 사람인의 경쟁력"이라며 "매칭 시스템 연구로 정보 매칭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구직자의 니즈를 담아내는 혁신적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스마트 숙명여대 앱 27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서 KT가 구축한 '스마트 숙명' 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숙명' 앱으로 출결 시험 관리 건물출입, 열람실 좌석 예약 등을 할 수 있다 /KT 제공

일하는 30대 여성 사상 최대

저출산-골드미스 급증따라

일하는 30대 여성이 크게 늘어났다 저출산에 따른 상대적 육아 부담 감소와 골드미스(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여성)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다 이는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사상 최고다

월 기준으로는 지난달 58.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월보다 1.2%포인트나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 감소가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에서 1984년 1.74명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1.19명까지 30년째 1명선을 유지했다 학력과 경제능력을 갖춘 여성이 증가하고 이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편이다 지난해 30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3.2%로 30대 여성보다 무려 36.2%포인트 높았다

20대 여성(62.0)이 20대 남성(61.2%)보다 높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를 이뤘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대 여성의 경우 자녀를 2명 기를 때보다는 1명 기를 때 직장으로 돌아갈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에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는 정책적 요인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토익스피킹 성적 빨리 받는다

발표 소요기간 5일로 단축

하반기부터는 토익스피킹 성적을 기존에 비해 5일 빨리 받아볼 수 있다

국내 토익 스피킹 주관사인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토익스피킹 시험의 성적 발표 소요기간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기업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가 짧아지고 있어 토익 스피킹 성적이 급하게 필요한 취업 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란 설명이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자세한 토익스피킹 일정은 YBM 시사 어학시험 홈페이지(exam.ybmsis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열심히 공부한 당신 춤춰라!

YBM '에너지 UP 캠페인'

공부 구직에 지친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YBM시사닷컴은 케이블 채널 엠넷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 시즌2'와 함께 '에너지 UP 캠페인'을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부해라고! 춤춰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YBM 온라인 강의 수강생과 댄싱9 시청자를 대상으로 춤과 체조가 어우러지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다양하게 선보이는 방식이다

우선 YBM 동영상 강의에는 댄싱9 시즌 1 멤버들이 직접 출연해 몸풀기 운동을 선보인 '에너지UP 캠페인 댄스'를 프리롤(pre roll) 형태로 만날 수 있다 또 댄싱9의 첫 방송일을 맞추고 홈페이지(e4u.com)에 응원 댓글을 남기면 참여자 전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수강포인트 1000점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5명을 뽑아 댄싱9 시즌2 방청권(1인 2장)도 증정한다

'에너지UP 캠페인 댄스' 영상을 시청한 후 홈페이지(e4u.com)에 인증샷을 올려도 YBM 온라인 어학 사이트 강좌 5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황태와 자연의 조화로운 향연 한마당

다음달 6일 강원 인제군 용대리서 다양한 '체험 축제'

전국 최고의 황태를 실컷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바로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강원 인제군 용대리에서 '황태와 자연의 조화로운 향연-용대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다.

◆매력 만점의 축제 속으로

축제의 성공과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로 시작되는 축제에서는 우선 전국 제일의 황태 고장으로 유명한 용대리 황태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동시에 100명이 참가할 수 있는 황태요리 체험장이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되며 ▲황태 강정 만들기 ▲황태국 만들기 ▲황태 양념구이 체험 ▲황태 라면요리 체험 ▲가마솥 황태국 시식회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또 황태마을 장터에도 황태 건어물 판매장, 황태요리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이 들어서 최고 품질의 황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용대 황태 특구 지정 전국 각설이 경연대회가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더하며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힘 자랑 최고의 황태 아빠를 찾아라 ▲황태 가족 말씨름 대회 ▲가족사랑 황태 소망달기 등이 진행된다.

게다가 육칠뛧기, 고리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황태가족 윷놀이 등의 문화 체험 행사도 이어지며 황태홍보관, 황태덕장 포토존에서는 연인이나 가족과 황태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7080콘서트, 숯가마 터워기 공연도 준비되며 너와집을 쉼터로 활용해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체험 장터에서는 황태 오미자·표고주·콩·곰취 등 '인제 5대 명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으며 백담사, 용대리 계곡 등 인접해 있는 인제군의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윤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인기 호텔을 천원에 예약하자!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거리에 마련된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행사장에서 모델들이 단돈 1000원에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1000원 호텔 프로모션'을 알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로모션은 세계 6개 도시 호텔의 1000개 객실을 1000원에 예약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주차별로 다른 도시의 호텔 예약이 시작된다. /익스피디아 제공

영화 '스파이더맨2' 굿바이 이벤트

소쿠리패스, '뉴욕 트래블패스&여행 상품'도 선보여

트래블패스 전문 쇼핑몰 소쿠리패스(대표 정창호)가 미국 관광청과 함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굿바이 시사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소쿠리패스 홈페이지에서 전세계 트래블패스를 구매한 후 공지사항에 댓글을 남기면 응모 가능하다.

총 50명(1인 2매)에게 스파이더맨2 영화 시사회 티켓이 증정되며 영화 관람 이후에는 경품 추첨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소쿠리패스는 '뉴욕 트래블패스&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상품 중 '뉴욕 시티 패스'는 뉴욕의 유명 관광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와 자유의 여신상 등을 패스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야경 크루즈'를 구입하면 노을지는 시간에 맞춰 뉴욕 맨해탄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정창호 소쿠리패스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와 새로운 상품을 준비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의 여행 패스와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쿠리패스는 파리·런던·뉴욕 등 9개국 13개 도시의 트래블패스와 관광명소 티켓 등의 다양한 자유 여행상품을 현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윤재용기자

단장 끝낸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

야생화 전시회, 한식 체험 등 프로그램 가득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관광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를 27일 재개관했다.

사랑채는 그동안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우리 역사를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한국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사랑채를 올해 3월부터 직접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두 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한국문화 전시실 ▲기획전시실 ▲기념품점 ▲쉼터 등으로 사랑채를 재편했다. 또 한식 체험 프로그램과 우리 꽃 야생화 전시회 등의 다양한 기획 전시를 마련했다.

특히 9월까지 이어지는 야생화 전시회에서는 150여 점이 넘는 야생화와 40여 점이 넘는 석륜 세밀화 꽃 누르미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관광공사는 새롭게 단장한 사랑채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의 주변 명소와 함께 세계적인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랑채는 경복궁역 3,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효자동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윤재용기자 hsoul38@

하나투어, 다일공동체와 파트너십

캄보디아 지속가능 발전위해 총 1억원 기탁

하나투어(대표 최현석)가 최근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와 캄보디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고객 참여형 여행상품을 활성화해 현지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나투어는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다일공동체에 기탁할 계획이며 이 금액은 캄보디아 수상 빈민촌의 생계를 지원하는 빵 지원사업과 밥퍼(밥 퍼) 활동 등에 사용된다.

한편 하나투어는 2011년부터 캄보디아 초선소 건립 및 빵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화 '고려인삼' 세계가 1위 인정

전체 백삼 수출 60% 차지

일화는 맥콜과 국내 탄산수 시장 1위인 초정탄산수로 유명한 기업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일화는 최고의 고려인삼 전문기업으로 더 익숙하다.

창립 초기부터 인삼 제품 수출에 주력했던 일화는 국내 백삼 제조업체의 총 수출액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1등 기업이다. 이를 통해 매년 2000만 달러 이상의 인삼 제품을 4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1973년 국내 최초로 인삼제품을 해외에 수출했으며 매년 해외 고객 방문단을 초청해 생산현장 견학, 인삼밭 채굴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인삼 한류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화 인삼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품질관리에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원료삼의 선별에서부터 철저한 회학 성분이나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최고 품질의 인삼만을 선별해 사용하고 있다. 일화는 인삼 검사 전 과정에 ISO-9001 인증의 국제 규격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토양 검사는 물론 철저한 품질검사 등을 벌이고 있다.

일화는 국내 인삼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KGMP를 획득한 국제규격의 인삼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춘천 G-Tech 빌리지에 약 360여억 원을 투입해 대지 2만3513㎡에 건축면적 655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춘천GMP 공장을 준공했다.

이곳에서는 인삼의 추출과 농축 등 전 공정을 일괄 처리하며 최첨단 공조 시스템을 활용한 청정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자재와 완제품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전 과정이 무인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화의 우수한 연구진이 개발한 신물질 IH-901은 강력한 항암작용과 암 전이 억제작용, 면역 증강작용, 항 알레르기 작용 등을 활성화하는 신물질로 인삼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

인삼가수분해농축액은 인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유래 물질인 Compound K 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분이다. 인삼의 유효 성분은 삼별 체질 현령에 따라 흡수율에 차이가 있는데 일화의 인삼가수분해농축액은 이를 개선해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 인삼가수분해농축액을 이용한 진스트15(Ginst 15) 제품군은 현재 일화 인삼의 주력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성균 일화 대표는 "일화는 세계 최고의 인삼 전문 기업의 명성 그대로, 세계 시장에 한국 인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삼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끊임없는 제품개발을 통해 국내 인삼 수출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세바른병원 강서점, '류마티스관절염' 무료 강좌

세바른병원 강서점이 29일 오후 3시 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과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김도현(사진) 세바른병원 강서점 원장이 강의를 맡아 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와 진단 기준, 치료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또 참가자들에 류마티스관절염의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법을 직접 따라해 보는 시간도 이어진다.

김 원장은 "강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을 바로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좌는 1시간 가량 진행되며 류마티스관절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무한변신 '트랜스포머 가방'

형태 변하고 수납은 스마트하게 실속형 눈길
여행용 가방, 노트북·태블릿PC 수납 편하게

최근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실속형 '트랜스포머 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가지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용 백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납공간이 넉넉한 여행용 가방까지 그 변화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브루노말리에서 최근 새롭게 선보인 '스텔라 쉔즈백'은 백팩으로 이용하다가 어깨끈을 빼 양쪽 고리에 장착하면 숄더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옷차림과 상황에 맞게 끈을 숨기면 토트백으로도 변형 가능한 멀티백이다.

이 브랜드의 쵸이엘로 제품 역시 스트랩의 탈부착 기능으로 클러치백, 숄더백, 크로스백 등 3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6월에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용 가방에서도 실용적인 제품이 눈에 띈다. 변형은 물론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납공간을 스마트하게 만든 가방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백팩과 캐리어 두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하이시에라의 UFO 휠백팩은 착용자의 편의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투인원(2-in 1) 가방이다. 아웃도어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색상과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이 가방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비즈니스맨은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챙겨가는 경우가 많다. 샘소나이트는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인 이노바의 리뉴얼 제품인 뉴 이노바를 선봤다. 이 여행용 가방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수납할 수 있도록 수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면 포켓을 장착해 수납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활동량이 많은 여행지에서는 핸드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을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로스백이 필수 아이템이다. 하이시에라 스판 크로스백은 심플한 디자인과 경쾌한 느낌이 가미된 가방. 수납공간이 부족한 미니 크로스백의 단점을 보완해 이 앞부분에 작은 지퍼를 장착,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적과의 동침, 젤리슈즈와 아쿠아슈즈

여름철 대표 신발인 젤리슈즈와 아쿠아슈즈가 혼스러움을 벗고 소비자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대표 김기호)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의 여름 신발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디자인 변신을 한 아쿠아슈즈가 평균 30%씩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또 2012년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젤리슈즈도 최신 감각의 디자인을 접목한 후 다시 평균 20%씩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젤리슈즈는 2010년까지만 해도 주로 반투명한 재질에 방수 기능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출시되며 '비올 때 신는 저렴한 신발'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신발의 최고 전성기는 2011년. 당시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장식의 제품이 쏟아져 나오며 전년 대비 695%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젤리슈즈의 아성을 허무하게 무너뜨린 주인공은 2012년 여름 신발로 등장한 아쿠아슈즈다. 이 업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쿠아슈즈는 아웃도어·익스트림 스포츠의 인기와 함께 판매율을 꾸준히 늘려 갔다. 특히 2012년 크록스 제품이 히트를 치며 전년 대비 64%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쿠아슈즈의 성장세와 달리 젤리슈즈는 2012년에 전년 대비 54%의 하락세를 보여 젤리슈즈 소비층이 아쿠아슈즈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젤리슈즈는 아쿠아슈즈에 빼앗긴 시장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패션 신발에 버금가는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며 2013년부터 판매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아쿠아샌들도 초기에는 다소 투박한 모양새였지만 쾌적하고 가벼운 착용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각광받고 있다. 이제는 패밀리 슈즈의 대명사로 떠오른 이 샌들은 온 가족이 하나씩 신고 다닐만큼 대중화된 신발로 자리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최근에는 2030 여성층을 위한 웨지힐 형태의 아쿠아슈즈가 전년 대비 39%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디자인 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김학철기자

스타벅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사진)가 27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호봉 및 급여체계, 복리후생제도, 능력평가 시스템 운영, 승진기회 부여에 미국 본사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남녀차별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 적용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구 대표는 "스타벅스는 능력과 의지, 커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연령·인종·성별·학력·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등 직장을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파트너들에게 차별 없는 기회를 부여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illegible]기자

겨울 과일 유자, 여름을 사로잡다

유자 넣은 제품 잇따라 출시

여름에는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불쾌지수를 내려줄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한 맛과 향을 찾게 된다. 지난해 여심을 사로잡은 블루레몬에이드는 여름 대표 음료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오렌지 향이 가미된 향수와 스킨케어 제품들이 여름에 유독 사랑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겨울 제철 과일인 유자가 시트러스 계열을 대표하는 과일로 급부상하면서 여름철에도 사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자 성분을 함유한 음료와 뷰티 아이템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유자는 한의학적으로 서늘한 성질로 해열과 해열·진해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질이 여름에는 체내의 열을 식혀주고 겨울에는 감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자에는 레몬의 3배, 사과의 25배 이상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어 피부 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는 유자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유자 블렌디드 주스'를 선보였다. 국내산 유자와 얼음을 함께 갈아 보다 시원하고 상큼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유자 오렌지 롤'과 '유자 위크엔드 파운드 케이크'도 유자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상품이다.

커피 전문점 마노핀에서도 유자 과즙과 시원한 탄산수가 조화를 이룬 '유자 에이드'를 신제품으로 내놔 여름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오설록 역시 5월 햇차 수확철을 맞아 햇차 시즌 메뉴 5종을 출시하면서 '햇녹차 슬러시에 유자 세트'와 유자청을 올린 아이스 메뉴 '햇 프레시 유자 그린티'를 선보였다.

탐앤탐스는 국내산 유자를 절인 유자청을 넣어 상큼한 과육이 씹히며 달콤한 유자향이 가득한 것이 특징인 유자차와 유자에이드, 유자 스무디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피부에 생기와 상쾌한 향 선사

뷰티업계에서도 유자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엘리자베스 아덴은 기존에 큰 사랑을 받아온 '그린티 향수'에 유자를 접목한 '그린티 유자 향수'를 출시했다. 유자, 견과, 베르가못, 스피를 레몬, 그랑디 등의 탑 노트와 유자펄프, 야생 백리향 등의 미들 노트, 머스크, 화이트, 자작나무 등의 베이스 노트가 은은하게 어우러져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향수와 함께 바디크림과 샤워젤도 내놨다.

일리는 유자 성분을 함유한 '프레쉬 모아스춰 라인'을 선보였다. 이 라인은 각 제품마다 유자 성분을 함유해 지친 피부에 생기와 상큼한 향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샤워 후 촉촉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바디워시와 바디워시에 스크럽 기능까지 더한 스크럽 워시, 건조한 바디피부에 수분감과 은은한 유자 향을 느낄 수 있는 바디 미스트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제주에서 온 제품으로 힐링해볼까

청정 이미지 강조해 소비자에 어필

최근 제주의 천연 기운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녹차·용암송이 등 청정섬 제주의 천연 원료를 사용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 기능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퓨어힐스의 '제주 용암송이라인'은 용암송이를 사용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관리해준다. '제주 청정 용암송이는 단번 모공 속의 블랙헤드를 빠르고 말끔하게 흡착하는 효능이 있어 피지때문에 칙칙해진 피부를 밝혀주는 필링이다. 이 제품에는 미네랄 등의 유효 성분이 풍부한 제주해수가 함유돼 각질·피지 및 노폐물을 자극 없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어 피부 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꿔준다.

최근 출시된 네이처리퍼블릭의 '진짜진짜 산뜻한 제주 탄산 H2O 클렌징 워터'는 물 세안 없이 클렌징과 보습, 피지케어까지 한 번에 관리해주는 노워시 타입의 세안제다.

아리따움에서 출시된 '알로에 수딩젤'은 알로에 에센스를 99% 함유해 자극 받은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쿨링감을 선사하는 제품으로 제주에서 자란 무농약 알로에만을 사용했다.

오설록의 '메모리 인 제주(Memory in JEJU)'는 제주의 꽃길에서 느꼈던 아련한 설렘의 향기와 달콤했던 사랑의 추억을 담은 블렌딩티다. 단순한 녹차가 아니라 꽃에서 추출된 향 속에 본연의 숨겨진 달콤한 과일 향미를 극대화해 오설록만의 시그니처 블렌딩을 완성했다. /정혜인 기자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 급증

청약 철회 거부도 많아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접수된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달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18.4%인 459건이었다.

또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다.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정영일기자 jems@

네스프레소, 기업용 캡슐 커피 '리스트레토 인텐소' 출시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기업용 캡슐 커피 중 가장 강도 높은 커피 '리스트레토 인텐소(Ristretto Intenso)'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네스프레소 비즈니스 솔루션 중 가장 높은 강도 10의 리스트레토 오리진 인디아보다 2단계 높은 강도 12로 새로운 강렬함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렬한 커피의 맛과 아로마가 우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카페라테 또는 카푸치노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시럽과도 잘 어울려 카페 또는 레스토랑에서 차별화된 커피 메뉴를 개발할 때 활용하기 좋은 커피로 알려져 있다.

리스트레토 인텐소는 네스프레소의 가정용 커피캡슐의 인기 캡슐인 '카자르(Kazaar)'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카자르는 2010년, 2013년 한정 출시될 때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지난해부터 영구적인 가정용 그랑 크뤼 커피로 선보이고 있는 캡슐이다. 기업용 버전인 리스트레토 인텐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스프레소 커피 전문가들은 리스트레토 인텐소 개발을 위해 원두 선별에서 블렌딩, 로스팅까지 수준 높은 연구와 기술을 적용했다.

리스트레토 인텐소는 엄선된 브라질산과 과테말라산 로부스타에 개별 로스팅된 남미산 아라비카를 블렌딩해 탄생했다. 또 두 종의 로부스타는 강하게 로스팅해 쌉싸름한 맛과 질감을 살리는 한편, 아라비카는 저온에서 오랫동안 로스팅해 섬세한 맛을 낸다. 이 때문에 리스트레토 인텐소는 강렬한 쓴 맛과 스파이시 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높은 밀도를 느낄 수 있다.

/정영일기자 pong@metroseoul.co.kr

역시 전지현 뷰티푸드 브랜드 VB(뷰티Beauty)는 지난 달 "슬리머DX"의 리뉴얼 출시와 함께 공개된 "전지현의 독설 다이어트" 영상이 런칭 이후 누적조회수 121만뷰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VB 제공

"결혼 후 달라진 점이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장동건(42)은 몇 년 전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이전엔 너무 신중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농담을 툭툭 던지며 '셀프 디스'까지 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고 올라와도 참는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덜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면서 연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배우 장동건

장동건이 다음달 4일 개봉할 '우는 남자'로 2년 만에 팬들 앞에 돌아온다. 그는 이번 영화에 대해 "힘들게 찍었지만 기대만큼 나온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200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중년 로맨스 열풍을 일으킨 그는 이번엔 원빈 주연의 '아저씨'로 한국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이정범 감독과 의기투합해 색다른 감성 액션에 도전했다. 타겟인 모경(김민희)을 만난 후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킬러 곤 역할을 맡았다.

'우는 남자'를 '아저씨'와 비교하는 말이 무성하지만 장동건은 개의치 않았다. "비교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정범 감독이 '난 앞으로 누아르만 하겠다'고 했던 말을 인상 깊게 들어서 그에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아저씨'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장동건은 킬러가 되기 위해 촬영 4개월 전부터 고된 액션 훈련을 받았다. "4년간 몸을 방치했더니 훈련을 시작하고 한 달간 정말 힘들었다. 지금은 자신감을 다시 찾았는데 그 때는 솔직히 큰일 났다는 후회가 들었다. 예전보다 몸이 더디게 반응할 때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999년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찍을 때를 떠올리면 부끄러워요. 그 때는 제 견해 없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했죠. 이번엔 신마다 의견을 나눴고 더 나은 장면을 얻고자 여러 버전으로 찍었어요. 솔직한 심경으로 흥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좋은 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저씨'와 비교 신경안써 촬영 없을 땐 자녀와 함께 아내 덕에 부부싸움 없어

◆가장 장동건

촬영장이 아닌 집에서의 장동건은 어떨까.

"촬영하는 동안에는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촬영이 없을 때는 늘 함께 있으려고 해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는데 이런 생활을 접은 지 오래됐죠. 처음엔 아이와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재미있어서 아이와 놀아요. 그런데 아이가 둘이 생기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하하."

아내 고소영에 대해 믿음과 애정이 깊어 보였다.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아이에 대한 견해 차가 생기면 다툰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 엄마가 알아서 잘 해줘서 부부싸움을 할 일이 없다"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 여자의 남자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그에게 결혼 후 달라진 점은 과연 무엇일까. "공식석상에서 상대 여배우와 살갑게 대할 수 있었는데 결혼 후엔 자제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하하."

/채성오기자 @metroseoul.co.kr

사진/SM C&C 제공 디자인/최송이

영화 '우는 남자'에서 감성 액션 도전한

장·동·건

아이돌 최강 '축구돌' 가리자

브라질 월드컵 선전 기원 '2014 아이돌 풋살 경기' 개최

다음달 개최되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아이돌 가수들이 총출동해 풋살 경기로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MBC '2014 아이돌 풋살 월드컵'은 한치 양보 없는 승부로 프로 선수 못지 않은 열기를 뿜어냈다.

◆ 월드컵 예선전 못지않은 열기

이날 경기는 A팀과 C팀, B팀과 D팀이 각각 예선을 치른 후 올라온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나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시작 전부터 현장을 찾은 팬들의 응원 열기는 실제 월드컵을 방불케 했다. 특히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수비수를 제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가수들도 마치 실제 축구 선수가 된 듯 진지한 자세로 경기에 임했다.

첫 경기는 A팀과 C팀의 예선으로 A팀은 샤이니 민호, 엑소 시우민·루한, B1A4 바로, 인피니트 우현·호야, 네이스티 소룡·쿠나즙라이·샘 선러(골키퍼)로 구성됐다. C팀은 틴탑 리키·칩조, 비따센트 찬범·진용, 유키스 수현, 에이젝스 효준·승연, 씨클라운 레이, 블락비 유권(골키퍼)이었다.

이날 A팀은 C팀을 7대 1로 꺾고 결승에 먼저 올랐다. 전반전 시작 1분 만에 바로의 슛이 두 번이나 골망을 가르며 경기 흐름을 이끌었다. 이어 민호의 첫 번째 골이 터졌다. 3분 후 민호는 1골을 추가하며 운동돌 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민호는 전반전에만 3골로 해트트릭을 장식했다.

전반전 내내 슛을 시도했던 바로는 후반전 시작 3분만에 슛을 성공시켰다. 전반전 수비 도중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은 우현도 C팀 골키퍼 유권이 방심한 틈을 타 끝까지 파고들어 골로 연결했다. 이어 루한이 연달아 2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굳혔다. 수세로 몰리던 C팀의 수현이 경기 종료 직전에 1점을 획득하며 팀의 자존심을 지켰다.

◆ 원조 운동돌 vs 새로운 운동돌

두 번째 경기에선 B팀이 D팀을 4대 1로 승리했다. 이날 B팀은 제국의아이들 동준·민우·태헌(골키퍼), 마이네임 세용·인수, 빅스 레오·라비, 소리엘 변장문, 주다건이 선수로 나섰다. D팀은 갓세븐 영재·주니어, 엠파이어 유승, 소년공화국 수웅, 탑독 P군, 오프로드 리오, 대국남아 가람, 가울지 큐, 소년공화국 원준(골키퍼)으로 짜여졌다.

연신 골이 터지던 첫 번째 예선과 달리 B팀과 D팀의 경기는 초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특히 각 팀의 골키퍼인 태헌과 원준의 선방으로 쉽게 점수가 나지 않았다. 0-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기 직전 B팀 세용이 찬 공이 거미손 원준에게 막혀 튕겨나왔다. 하지만 공이 다시 골라인 안으로 들어가며 자살골로 인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1-0 상황으로 후반전을 맞이한 B팀과 D팀은 번갈아 가며 슛을 날렸다. 후반 1분 세용이 한 골을 추가하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으며 레오도 골을 성공시켰다. 3-0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D팀 유승이 만회골을 넣었다. 하지만 B팀의 에이스 동준이 우사인 기세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성공시켜 4-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선 신흥 운동돌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민호와 동준이 원조 에이스로 경기를 이끄는 가운데 바로·루한·세용 등 신흥 강자들의 플레이도 돋보였다. 특히 두 번째 경기는 '거미손의 대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태헌과 원준이 철벽 방어에 성공하며 '방어돌'로 떠올랐다.

한편 A팀과 B팀의 결승전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경기는 다음달 초 방송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sraklim@metroseoul.co.kr

스터게스의 '크로싱 오버' 개봉

연인 배두나의 '도희야'와 경쟁

크로싱 오버 /싱이지엔터테인먼트 제공

배두나의 남자친구인 짐 스터게스가 출연해 화제가 된 '크로싱 오버'가 이달 29일 개봉된다.

'크로싱 오버'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추방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민국 요원 맥스(해리슨 포드)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민자의 삶을 그렸다.

해리슨 포드·애슐리 쥬드·레이 리오타 등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는 물론 최근 배두나와 열애를 인정한 짐 스터게스와 파격 노출 연기를 소화한 앨리스 이브 등 라이징 스타까지 총 출동했다.

짐 스터게스는 극중 뛰어난 음악 실력을 가졌지만 유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인물을 연기했다.

공교롭게도 배두나 주연의 '도희야'가 22일 개봉해 연인끼리 흥행 경쟁을 펼치게 됐다.

이 밖에 '트와일라잇' 시리즈에 에릭 역으로 나왔던 저스틴 전과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 출연한 레오나르도 남 등 한국계 배우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그중 저스틴 전은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가정의 장남인 용을 맡아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미국 사회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신혜기자

와썹이 부르는 섹시 응원송

걸그룹 와썹(사진)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라틴 감성의 정열적인 응원곡 '파이어'를 발표했다.

29일 출시될 '파이어'는 레게 가수인 엠라이언과 인기 프로듀서 야마가 함께 만든 곡으로 대표적인 카니발 음악인 '소카'의 리듬을 차용해 월드컵의 열기를 고스란히 담을 예정이다.

'파이어'는 파워풀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에 K-팝 특유의 트렌디함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도록 만들어졌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또한 와썹만의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매력이 더해져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와썹은 월드컵 송 발표 후 새 앨범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정순호기자 sune@

뉴이스트 일본서 화려한 데뷔

남성 그룹 뉴이스트(사진)가 일본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뉴이스트는 26일 도쿄의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뷔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는 100여 명의 일본 매스컴 관계자들뿐 아니라 200명의 팬들이 참여해 뉴이스트의 데뷔를 축하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뉴이스트 멤버들은 "일본에서 콘서트를 몇 차례 했지만 드디어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게 됐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뉴이스트는 일본 데뷔 싱글 발매에 앞서 7월 30일에 한국 발매 곡들을 수록한 '뉴이스트 베스트 인 코리아'를 발매한다. 특히 이 CD에는 8월에 개최되는 뉴이스트의 일본 투어 공연장에서 열리는 악수회에 참께 할 수 있는 이벤트 참가권도 들어있다. /유순호기자 sunoo@

6월 가요계 보이그룹 천하

인피니트·비스트·유키스 변화
빅스·제아·B.A.P 완전체 복귀

더러 솔로 가수들의 컴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가요계가 보이 그룹들의 출격으로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소년에서 남자로 거듭난 그룹 빅스가 네 번째 싱글 '이터니티'로 출사표를 던졌다. 6월에는 제국의 아이들과 비스트, 유키즈가 컴백 대열에 합류한다. 6월 가요계를 뜨겁게 달굴 아이돌 그룹의 매력을 분석해 봤다.

◆ '성장통' 그룹 변화 예고

3년 만에 정규 앨범 '시즌2'를 발매한 인피니트는 소년에서 남자로 변신했다. 최근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는 "이전의 활동이 시즌 1이라면 지금부터는 인피니트의 시즌 2다"고 언급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 인피니트의 타이틀곡 '라스트 로미오'는 로맨틱한 남자의 테임시인 로미오를 콘셉트로 내걸었다. 새 앨범은 성숙함까지 묻어났다.

인피니트는 각자 음악적 역량을 펼쳤다. 신곡으로 채워진 13곡 중 4곡이 유닛이나 솔로곡이다.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로 변신한 인피니트가 성공적인 시즌 2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월 중순 컴백을 앞둔 그룹 비스트는 팀 로고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모습을 예고했다. 비스트는 지난 2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데뷔 이래 사용해오던 로고 이미지의 변신을 꾀한 새로운 버전의 로고를 공개했다.

지난해 여름 정규 2집 '하드 투 러브, 하우 투 러브'로 각종 음악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음악차트 1위를 휩쓸며 저력을 과시했던 비스트는 새 앨범에서 한층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룹 유키스는 새 멤버 준을 영입하고 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6월 2일 컴백하는 유키스는 데뷔 6년차인 만큼 타이틀곡 '끼부리지마'로 기존 아이돌 음악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 쌓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까지 겨냥한 파격적인 콘셉트와 성숙한 음악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키스

제국의 아이들

B.A.P

◆ 완전체로 돌아오다

그룹 빅스는 27일 네 번째 싱글 '이터니티'를 공개하고 타이틀곡 '기적'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발매된 정규 1집 타이틀곡 '저주인형' 이후 6개월 만에 선보인 신곡 '기적'은 힘 있는 비트와 트렌디한 신스 사운드 위에 감성적이고 슬픈 멜로디가 어우러져 묘한 슬픔을 전달하는 곡이다.

애절하면서도 반전 있는 감미나 작사가만의 특별한 가사와 곡 후반부로 갈수록 울부짖는 듯한 코러스 라인은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차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내달 2일 컴백하는 그룹 제국의 아이들은 지난 23일 소속사를 통해 새 미니앨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멤버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시크한 도시 남성 '퍼스트옴므'를 표방해 티저 촬영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성인 남성의 고급스러운 섹시미를 담아 기대감을 높였다.

그룹 B.A.P도 3월 네 번째 싱글로 돌아온다. 지난 2월 첫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로 성숙한 남자의 면모를 드러내며 정상에 올랐던 이들은 'B.A.P 언플러그드 2014'로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앨범에서는 기존의 B.A.P가 선보였던 묵직한 힙합 사운드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아닌 편안하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선사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yoo@metroseoul.co.kr

2014브라질월드컵 MBC 방송단

MBC 8년 만에 월드컵 귀환

김성주·안정환·송종국 조합 시험대
'젊은피' 허일후 아나운서 등도 기대

MBC가 8년 만에 월드컵 중계자 본의 귀환을 알렸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MBC가 27일 여의도 사옥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MBC 방송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재원, 새로운 개념의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중계방송을 예고했다.

그 중심에는 김성주 캐스터와 안정환·송종국·서형욱·박찬우 해설위원이 있고 '젊은피' 김정근·허일후·김나진 아나운서와 김초롱·이재은·박연경 아나운서가 가세한다.

이날 김성주 캐스터는 "안정환·송종국 해설위원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태극전사로 활동했다"며 "그들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들을 잘 녹여서 재기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중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종국은 게임 전반의 흐름을 분석하고 안정환은 결정적인 순간 열정을 쏟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종국 해설위원은 "월드컵 당시 수비를 담당했기 때문에 수비 위주의 전문적인 해설을 많이 준비했다"면서 "축구를 보지 않았던 시청자들도 월드컵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가장 가까운 시각에서 중계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정환 해설위원은 "최근 현역에서 은퇴했다는 점에서 최근 축구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경기를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주 캐스터와 안정환·송종국 해설위원은 28일 튀니지와의 국내 최종 평가전에서 첫 호흡을 맞춘다. 3인방의 월드컵 첫 중계는 다음달 18일 오전 7시에 시작하는 러시아와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다.

/김보훈기자

"공개 연애 또 하겠다"

'시청률의 제왕' 이색 공약 열전

KBS W '시청률의 제왕' 출연진 /KBS N제공

KBS W '시청률의 제왕'(31일 첫 방송) 팀이 시청률의 제왕이 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시청률의 제왕'에서 중심 역할을 할 MC 이휘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청률 6%가 나오면 쌍둥이 아들 서언·서준과 함께 방송 오프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예능은 전쟁터"라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매주 열심히 하자"는 각오를 전했다.

이휘재와 함께 진행을 맡은 가수 호란은 "시청률 4%를 예상하며 시청률의 제왕' 공식 포스터를 봉만대 감독 버전으로 다시 찍겠다"고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봉만대 감독은 예로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영화 감독으로 '시청률의 제왕'에서 독특한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봉 감독은 "포스터가 밋밋하다"며 "이 모습 그대로 옷을 벗고 다시 촬영하겠다"고 호란의 말에 답했다.

가수 레이디 제인은 "시청률 2~3%가 나오면 또 한번 공개 연애를 하겠다"고 이색 공약을 했다.

'시청률의 제왕'은 2회의 파일럿 방송을 거쳐 정규 편성이 확정된 예능이다. 메타를 담은 예능 토크쇼로 한 주간의 시청률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연예계 뒷이야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

'몽환화'를 쫓는 미스터리극

우리 사회의 책무에 대한 화두 던져

다양한 장르의 넘나든 스토리텔링으로 미스터리 장르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이 나왔다. 해마다 평균 세 편 이상의 작품을 탈고할 정도로 다작을 하는 작가지만 유독 이번 작품만큼은 연재가 끝나고 책으로 완성되기까지 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 작가는 '노란 나팔꽃'이라는 키워드만 남기고 전면적으로 소설을 재구성했다. 긴 세월 공을 들인 작품인만큼 묵직한 울림을 준다.

이번 작품은 에도시대에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는 노란 나팔꽃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첫머리는 연관성을 찾기 힘든 두 개의 프롤로그로 시작한다.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나팔꽃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소녀에게

몽환화

히가시노 게이고/비채

반한 중학생 소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은퇴 후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되는데 노인의 시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손녀딸 리노는 사건현장에서 노란 꽃을 피운 화분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고 사건의 진상을 좇기 시작한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에피소드들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나로 얽히는 구조는 최근 미스터리 소설의 경향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다.

타고난 스토리텔러라는 말에 걸맞게 작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쫓는 리노의 이야기와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 소타의 이야기를 절묘하게 직조해낸다.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던 노란 나팔꽃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사건들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가져야 할 책무와 도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노란 나팔꽃을 둘러싼 두 가문의 비밀과 소타의 전공인 원자력 공학에 빗댄 내용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파문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일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인간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뚜렷한 울림을 전한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특속 한 컷 | 폴 매카트니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전설의 환상짝이 기타리스트 폴 매카트니,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와 함께 데뷔 싱글 'Love Me Do'를 시작으로 수많은 히트 곡과 변함없는 역사에 남긴 비틀즈의 베이시스트다. 28일 국내 첫 내한공연을 하기로 했던 그가 건강 상의 이유로 공연 취소를 발표했다. 국내 팬들은 물론이고 매카트니 본인도 아쉬움은 마음이 큰 듯 하다. 회복 후 꼭 찾겠다는 그의 말이 허망고문이 되지 않길 바라며 고령의 나이가 걸리긴 하지만 빠른 쾌유를 빈다. 이날, 여태껏 비틀즈 바리도 가서 아쉬움을 달래야겠다. -'비틀즈 100'(브라이언 사우설/이트북스) 중-

/유학철기자 kimu0804@

내 즐거운 여행을 부탁해~

화제의 책

지극히 주관적인 여행

이상민/북노마드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면 항상 고민에 빠진다.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장소, 경비 등 사전에 철저한 정보를 찾아 여행을 보다 알차게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은 무한한 도움을 준다. 이미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며 페이지 구독자 수 60만 명을 기록한 '지극히 주관적인 여행'의 콘텐츠가 1박 2일 여행의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5개 권역별로 책이 구성돼 있으며 이는 다시 도시별 여행 방법으로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하나의 도시를 1박2일 동안 완전하게 즐길 수 있게끔 볼거리와 먹을거리, 숙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경로가 특히 인상적이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며 얻은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은 여행 초보자들한테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물론 여행자의 입장에서 직접 여행을 하며 느낀 것들만 엄선한 저자의 매력이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책은 숙소부터 시작해 각 여행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를 직접 표시해 자동차를 타고 여행가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전달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여행을 따라 보다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황재용기자 hsoul38@

새로 나온 책

취미

골프에 놀자

조상현/오션북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골프를 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골프를 제대로 알고 즐기는 문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저자는 언론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골프를 친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골프의 열쇠는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과 매너라고 설명한다.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품위가 있으면서 유쾌하게 비즈니스 골프를 즐기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자기계발

행복한 고통

김기홍/글로세움

100kg이 넘는 고도비만과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살던 중 자전거를 만난 한 남자의 성장일기다. 그는 엄청난 노력 끝에 약명 높은 미대륙 횡단 레이스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기부 라이딩을 지속하고 있다. 저자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와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려준다.

구글은 SKY를 모른다

이준영/알투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류대와 대기업을 성공의 잣대로 간주하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다. 구글 최초의 한국인 엔지니어 1호인 저자는 잠재력과 미래를 만들어나갈 자질을 통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간 자신의 경험을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종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성미/두란노

올해로 쉰다섯의 나이인 개그우먼 이성미가 한자 한자 손수 써서 책을 만들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시간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렸다. 책은 그녀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자녀양육과 캐나다 살이, 한국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게 된 이야기를 아름답게 묘사했다.

경제 경영

경영필수 상식사전

정재학/길벗

책은 고전 경영이론부터 마케팅·영업·경영전략·조직·인사·재무·회계의 최신 핫이슈까지 경영자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7개 마당으로 나눠 137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상사와 어려움 없이 대화하도록 회의시간 모든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직장 생존을 위한 든든한 도구가 될 것이다.

나는 3개의 카드로 목돈을 만든다

고경호/다산북스

저자는 "당신이 목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소비체질 때문"이라며 체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 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않는다. 책은 우리가 버는 돈은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임을 확실히 알고 소중한 돈이 무가치하게 새거나 낭비되고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건강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나가오 가즈히로/디디에북

죽기 전까지 항암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환자들과 항암제 처방이 습관처럼 굳어진 대부분의 의사들이다. 저자는 이런 항암제 사용이 무분별하다고 지적하며 진정 환자를 위한 올바른 항암제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사회

뮤지컬 사회학

차민우/이콘

우리나라의 뮤지컬은 브로드웨이로 대표되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조금 다르다. 비싸고 주연 배우가 여러 명이며 작품성보다는 배우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 이에 책은 무대 밖의 사회적 현상에 시선을 맞춰 한국 뮤지컬 시장을 파헤치고 있다.

역사

일본, 다시 침략을 준비한다

전제민/지혜나무

일본이 어떻게 작동하고, 일본의 세계관이 무엇이며,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목조목 짚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일본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날아간 퍼펙트승 쏟아진 기립박수

류현진 21타자 연속 범타 처리 8회만 3실점… 시즌 5승 달성

홈 징크스 탈출을 지상과제로 안고 등판한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완벽에 가까운 투구로 다저스타디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류현진은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미국프로야구 경기에서 시즌 9번째 선발 등판해 7⅓이닝 동안 3실점 하며 시즌 5승째(2패)를 따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2연승이다. 사사구 없이 탈삼진 7개를 잡았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3.10으로 높아졌다. 다저스는 4-3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다저스타디움에서 등판한 세 경기에서 9.00의 평균자책점에 2패만을 떠안았던 류현진은 홈 부진 탈출이 이날 경기의 최대 목표였다. 1회부터 시속 93마일(약 150㎞)짜리 강속구를 뿌리며 첫 타자 빌리 해밀턴을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운 류현진은 7회까지 21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는 퍼펙트 행진을 펼쳤다.

8·9회 6타자만 연속으로 잡으면 1965년 샌디 쿠팩스 이후 49년 만에 다저스에서 퍼펙트를 달성하는 투수로 등극할 수 있었다. 그러나 8회 신시내티의 첫 타자인 4번 토드 프레이지어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특유의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홈팬은 물론 다저스 선수들까지 대기록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류현진은 후속 타자에게 안타와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실점했고, 연속 안타를 맞고 1사 1·2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물러났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브라이언 윌슨마저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자책점은 3으로 늘어났다.

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류현진은 95개의 공을 뿌린 135분 동안 다저스타디움을 자신을 위한 독무대로 만들었다. 마운드를 내려가는 류현진을 향해 모든 관중과 팀 동료들은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

류현진은 1타점 1득점을 올리며 타석에서도 펄펄 날았다. 1-0으로 다저스가 앞서가던 7회말 1사 2·3루에서 류현진은 상대 에이스 조니 쿠에토와 풀카운트 접전 끝에 시속 153㎞ 직구를 때렸다. 유격수 실책에 힘입어 1타점을 올리며 1루를 밟은 류현진은 디 고든의 땅볼에 2루로 진루했고 칼 크로퍼드의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대기록을 의식해 타석에서 체력 조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류현진은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도록 전력 질주를 했다. 자신의 기록보다는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돈 매팅리 감독은 더그아웃에서 가장 먼저 류현진과 손을 마주쳤다. 결국 숨돌릴 틈 없이 마운드에 오른 8회초 첫 타자에게 첫 안타를 내주고 말았다.

류현진이 8회초 마운드를 내려가자 홈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작은 사진은 그에 앞서 7회까지 퍼펙트로 이닝을 마친 류현진이 담담하게 스코어보드를 바라보는 모습. /USA 투데이 스포츠·연합뉴스

◆ "퍼펙트 아무나 못해"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23번의 퍼펙트가 나왔고, 아시아 투수는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다르빗슈 유는 지난해 4월 3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9회 2사까지 퍼펙트로 막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기고 2루타를 맞았다. 뉴욕 양키스의 구로다 히로키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2008년 7월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 출전해 7회까지 퍼펙트를 기록한 바 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안타를 맞으니 대기록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퍼펙트게임) 생각이 없지 않았다. 큰 기록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 줘야 하는데 오늘은 운이 안 따라줬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다"며 "7회까지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구였다. 컨디션도 좋고 제구와 공 스피드 등 모든 게 좋았다"고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suno@

올스타전 KIA 챔피언스필드서 연다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7월 1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 첫 선을 보인 구장이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으로 국내 프로야구의 규모를 한 단계 높여 개최 장소로 낙점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올스타전을 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7월 17일 열리는 퓨처스 올스타전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신생구단 KT 위즈의 참가로 12개 구단이 처음 모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KBO는 올스타전 출전 선수 선정과 입장권 예매, 행사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황의준기자

KIA 챔피언스필드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27일

■ 잠실

팀	1-3	4-6	7-9	계
삼성	000	011	200	4
LG	021	000	002	5

[illegible]

■ 목동

팀	1-3	4-6	7-9	계
SK	000	001	112	5
넥센	002	140	03X	10

[illegible]

■ 대전

팀	1-3	4-6	7-9	계
NC	412	013	200	13
한화	000	020	052	9

[illegible]

■ 광주

팀	1-3	4-6	7-9	계
두산	100	000	022	5
KIA	003	030	20X	8

[illegible]

윤석민 첫 퀄리티스타트 투구

윤석민(28·사진)이 미국 진출 후 첫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에 성공했으나 시즌 2승 달성에는 실패했다.

윤석민은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의 하버파크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필리스 산하 트리플A 르하이밸리 아이언피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4피안타(1피홈런) 1볼넷 3실점 6탈삼진으로 호투했다.

미국 진출 후 최다 이닝인 7이닝을 소화하고 탈삼진 개수도 6개로 지금까지 치른 10경기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3-3으로 맞선 8회 시작과 동시에 교체되며 승패와는 무관했다.

윤석민은 7이닝을 던지면서도 투구 개수는 88개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적인 투구를 했다. 이중 스트라이크는 61개였다. 올 시즌 성적은 1승 5패로 그대로였지만 6.75였던 평균자책점은 6.32로 조금 떨어졌다.

한편 노퍽은 이날 경기에서 르하이밸리에 4-5로 패했다.

/장병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